

기독교 대학생의 수용행동이 신앙성숙도와 강점인식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대처의 매개효과

오윤선* 김미숙**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대학생의 수용행동과 신앙성숙도, 강점인식의 관련성 및 긍정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 대학생 총 450명을 표집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24.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모델의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대학생 집단의 수용행동과 신앙성숙도, 강점인식 및 긍정적 대처는 서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독교 대학생 집단의 수용행동은 신앙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독교 대학생 집단의 수용행동은 강점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독교 대학생 집단의 신앙성숙도는 강점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대학생의 긍정적 대처는 수용행동과 신앙성숙도의 관계에서, 수용행동과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수용행동과 긍정적 대처, 그리고 신앙성숙도는 강점인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하여 실천적 함의와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수용행동, 신앙성숙도, 강점인식, 긍정적 대처, 대학생

• 논문 투고일: 2018년 3월 29일

• 논문 수정일: 2018년 4월 26일

• 게재 확정일: 2018년 4월 27일

* 한국성서대학교

** 한국성서대학교

I. 여는 글

대학생 시기는 생물학적 성숙이 끝나고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 단계(Arnett, 2000)로서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며, 자아정체감을 획득하고 다양한 삶의 과정에서 스스로 선택과 결정을 하는 시기이다(구본용 외, 2017). 하지만 한국 대학생들은 경쟁적 교육환경과 엄격하고 제한된 생활패턴으로 인하여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방법을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면 여러 난관에 부딪히게 되며, 적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양한 정서적 불안과 부적응을 경험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김경희, 2017).

2017년 잡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들의 82.9%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우울증 45.5%, 만성피로 40.1%, 대인기피증 7.5%로 나타났다(한국일보, 2017. 3. 31). 그리고 심은정(2016)의 연구에서도 불안 41.5%, 우울 35.8%로 나타났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의 우울과 사회불안 지수를 높이는 요인으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자기불일치에 주목하였다(김아롱, 김정민, 송근아, 2017). 이는 한국의 경제적 발전과 함께 무한경쟁사회가 도래하면서 대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상대적 열등감으로 인한 부정감정의 팽배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기독교 대학생들도 비기독교 대학생과 같은 경쟁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사회적 문제에서 예외일 수 없다. 더군다나 기독교 대학생의 경우, 교회 내외의 신앙적 낙인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를 노출할 수 없게 된다(박미하, 김은혜, 2012). 박미라(2017)의 연구 결과, 기독교 대학생들 중 19.7%는 부정정서와 관련하여 상담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기독교 대학생들의 스트

레스는 학교생활적응, 사회 및 개인정서 적응 등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윤선, 김미숙, 2016). 강은정과 이재희(2013)는 기독교 대학생의 자살 생각 지수도 심각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종과 이현철(2016)은 심리사회적 불안으로 인한 기독교 대학생의 학교부적응과 중도탈락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독교 정체성과 수용행동을 강조하였다.

최근 국내외 경험적 연구를 살펴보면, 수용행동이 심리적 안녕에 유익을 주는 중요 요인으로서 심리적 위험요인의 영향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높은 치료효과를 나타냈다(유성진, 권석만, 2011). 또한 수행행동은 질병, 스트레스, 심리적 장애를 예방하거나 그 증상을 약화시키고(황혜리, 서경현, 김지윤, 2011; Gable & Haidt, 2005), 불안이나 우울(문현미, 2005), 두려움(김정은, 손정락, 2012)과 같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 요인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증명되었다(Bach & Hayes, 2002; Hayes, 2004; McCracken, 1998; McCracken & Eccleston, 2003; 2005). 이러한 맥락에서 이서진과 김은하(2016)는 대학생의 부정정서, 불안 및 우울을 치료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용행동 증진 기법의 활용을 중요시 하였다.

이와 같이 대학생들의 부정감정의 치료기법으로 수용행동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 기독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장명수(2011)는 그리스도인의 위기를 통한 성장과정에서 경험하는 고난의 문제를 삶의 일부로 수용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수용행동은 심리적 경직성을 벗어나 유연성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신앙성숙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대학생들이 개인의 심리적 수용 차원을 넘어서 기독교 정체성과 성숙한 수용행동을 통해 언약적 수용에 이르도록 돕기 위한 기

독교 상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각 변수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재확립하고, 기독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도구를 활용하여 양적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대학생의 수용행동을 통해서 신앙성숙과 강점인식의 발전을 도모하고 긍정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도출함으로써 이들의 지도와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급격한 변화와 변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독교 대학생의 안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대학생의 수용행동, 신앙성숙도, 강점인식, 긍정적 대처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기독교 대학생의 수용행동은 신앙성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기독교 대학생의 수용행동은 강점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기독교 대학생의 수용행동과 신앙성숙도 및 강점인식의 인과관계에서 긍정적 대처가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II. 펴는 글

1. 이론적 배경

1) 수용행동의 이해와 선행연구 동향

Leslie Greenberg(1994)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는 수용행동(acceptance action)은 내적 경험에 대하여 회피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경험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하여 그 경험에 대해 잘 알아차리고, 자신이 가치를 두는 것에 효율적으로 다가가는 것을 말한다.

Steven C. Hayes(2004)에 의하면 수용행동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표는 경험적인 생각, 느낌, 감정, 신체감각 등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면서 관계를 변화시키고, 구성과정을 수용하여 어떠한 통제로부터 자유롭고 유연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즉 수용행동은 개인의 경험을 회피하는데 사용되는 에너지를 바꾸어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Hayes, 2003), 심리적인 유연성 증가로 부정감정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Hayes, 2006).

수용행동은 10여 년 전부터 인지행동치료 분야에서 제 3세대로 주목받고 있는데, 주로 사용되는 접근법은 알아차림 스트레스 관리(MBSR: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마음 챙김에 근거한 인지치료(MBCT: 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 변증법적 행동치료(DBT: Dialectical Behavior Therapy), 수용전념치료(ACT: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등이 있다. 최근 김지연 외(2012)는 인지행동치료의 수용기법들을 기독교 상담에 적용하여 통합적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에서 이해하는 수용행동은 심리학에서 의미하는 맞닥뜨림의 수용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수용은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인생의 모든 경험 그 자체를 아무 비판 없이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황선미, 박선희, 김용태, 2016). 하지만 옳은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심리학적 수용 개념만으로는 자신의 고난이 가진 의미를 알 수 없다. 자신의 이성적 한계를 직시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 자체에 대한 깨달음을 통한 수용과정에서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게 된다(우상혁, 2011; 이용호, 2015). 거듭난 기독교인은 자기로 존재하지만 단독적 자기(self)가 아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영적존재이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수용행동에 대한 이해는 심리학적 차원을 뛰어넘어 언약 신학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며, 한계적 존재이지만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있고(창 1:28), 죄 속에 살면서 동시에 영성(Spirituality)이 있는 역설적 존재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연결되어 있고, 언약은 철저히 하나님 주권 아래 있으며, 언약신학에서 언급하는 수용은 말김의 수용행동을 의미한다(황선미, 박선희, 김용태, 2016).

기독교 상담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인생 앞에 펼쳐진 고난을 수용하는 과정은 내담자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통합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를 겸허히 받아드리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맞닥뜨리고 하나님의 통제권에 의탁하는 삶이 언약적 수용행동(Covenantal acceptance ac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용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2004년 전후 Hayes(2016)는 인지행동적 조망을 통하여 수용과 관련한 치료적 접근을 실시하였다. 국내에서는 문현미(2006)가 심리적 수용 촉진 프로그램 개발을 처음 시도하였다. 그리고 대학생 대상의 연구로 수용과 심리적 증상, 삶의 만족도(이훈진, 2009), 심리적 안녕감의 관련성 연구(김경희, 2016) 및 부정감정의 관계에 대한 연구(김정은, 손정락, 2012; 김진미, 손정락, 2013; 김혜은, 김도연, 2012)가 주로 진행되고 있다.

수용행동에 관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근 햇볼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연구진에 의해서 3편의 논문(김지연 외, 2012; 이수미, 유희주, 배시은, 김용태, 2015; 황선미, 박선희, 김용태, 2016)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초적 연구단계에 있으며 양적연구, 질적연구, 실험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대학생 대상의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2) 신앙성숙도의 개념 이해와 선행연구 동향

신앙성숙(Faith Maturity)에 대한 정의는 주장하는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첫째는, 성경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신앙의 관점이 있고, 둘째는 심리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종교심리학적 관점 있으며, 마지막은 앞의 두 관점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 입장에서 보는 기독교 상담학적 관점이 있다.

첫째, 신앙성숙에 대하여 성경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살펴본 이정수(2009)는 성숙에 대한 가장 근접한 성경적 개념(출 19:6, 19:2, 20:26)을 ‘거룩’, ‘성결’, ‘완전’, ‘온전’ 등 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단어를 포괄하는 신학적 개념은 성화(sanctification)라고 할 수 있다. 성화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며(Hoekema, 2003)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게 된다(Packer, 2008).

성화의 삶에 대해서 이정수(2009: 23-40)는 “자신의 본성에 남아 있는 죄를 이기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가는데 까지 점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신앙성숙이 생득적(生得的)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성취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Nelson, 1989). 따라서 Larry Richards(1987)는 신앙성숙을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임을 믿으며, 끊임없이 점진적으로 훈련 받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믿음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며 실천하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어서 자기중심적 삶에서 벗어나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 신앙성숙에 대하여 심리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James W. Fowler(1981: 4)는 “신앙은 힘 있는 인생의 장으로 나아가는 한 인간

또는 집단의 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신앙성숙을 인간의 발달 단계 이상의 초월적인 것으로 생각 한 James E. Loder(1998: 341)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의 종교심리학자로 전인적 관점에서 신앙성숙을 개념화 시킨 Mary Jo Meadow와 Richard D. Kahoe(1984)가 설명한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성숙한 신앙의 비전과 태도를 가진 자, 신앙적으로 성숙하려고 노력 하는 자, 심리적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가 확인된 사람이다. Gordon W. Allport(1961)는 신앙성숙을 위한 방안을 더 구체화시켰는데, 가장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일상생활에서 온전함을 지향하되 최선을 다하려는 열린 마음 상태를 유지하며, 어려움이나 한계상황을 극복, 대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으로 보았다.

셋째, 통합적 관점에 신앙성숙의 개념을 피력하고 있는 조은희(2013)는 보편적인 성숙을 일반 은총적 측면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특별 은총적 측면으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면으로부터 급격한 신앙성숙을 촉진하고 완성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신앙성숙은 한 사람이 보편적 인간으로서 단계적으로 나가고 있는 발달적 측면에서의 성장 단계와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로 주어지는 종교적 체험으로 인한 변형 과정이 지·정·의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야 한다. 또한 그 자신과 타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성숙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조은희, 2013: 29-34).

같은 맥락에서 이억범(2013)은 성경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내용을

실천하는 행위이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대인관계에 의미와 목적을 두는 인지적, 정의적, 의지적인 면을 포함하는 신앙의 정도로 보았다.

종합해 보면, 기독교대학생의 신앙성숙은 전인적인 성숙을 의미하며, 예수님을 모델링(modeling)하여 지정의(知情意)적 요소를 모두 갖춘 신앙인으로서 성경적인 삶과 삶을 통하여 전 생애에 걸쳐 계속적으로 발현되어져야 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의 선행연구 가운데, Ronald J. Allen(1992)은 신앙성숙의 특징으로 신앙 정체성과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신앙성숙과 우울 정서의 관계를 다룬 김재영과 정숙희(2016)의 연구 등이 있다. 그리고 정숙희와 이해주(2012)의 신앙성숙도와 진로 관련성 연구와 최윤영(2012)의 신앙성숙도와 자아정체성에 관계를 증명한 연구 등은 주로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종교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2006년 이후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데(박향숙, 2006) 신앙성숙도와 다양한 변수의 관련성을 증명하는 양적연구와 실험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임신일, 형희경, 김대용, 2015).

3) 강점인식의 이해와 선행연구 동향

강점인식(strengths knowledge)이란 개인이 스스로의 강점을 지각, 발견,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Govindji & Alex, 2007). Daniel Goleman(2001)에 따르면 ‘강점인식’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창출하는 ‘자기인식’의 핵심적인 영역이다. 구약성경에서 ‘인식 또는 지식’을 의미하는 명사 ‘다아트(da’ath)’는 잠언서에만 39회 사용되었고, 동사 야다(yâda’)는 에스겔서 거의 모든 장에 걸쳐 57번 사용되고 있다. 이 단어들은 주로 ‘여호와를 아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아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관계에서 상호 '인식'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로서 자신의 잠재된 가치와 강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렘 1:5).

강점은 개인의 건강한 삶의 과정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충만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기 때문에(Lopez & Snyder, 2003) 강점 발견이나 활용 전에 자신의 강점을 스스로 인식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Snyder & Lopez, 2007). 강점은 어떤 상황이나 경험에 각각 의미를 부여하게 하며, 특정한 선택과 목표 및 행동과 관련되고 결국,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오윤선, 2016). 그러므로 개인이 탁월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강점을 강화시키고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Clifton & Paula, 1992).

Edward C. Anderson(2004)은 강점인식의 증가 및 자신감, 성취동기, 대인관계의 향상을 위해 강점기반 프로그램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강점인식과 강점활용의 독립적 개념을 명시한 Reena Govindji와 P. Alex Linley(2007)는 강점과 '유기체적 가치화(Organismic Valuing)' 및 안녕감의 관계를 증명하였다. 강점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 중 다수는 대학생의 행복 및 적응의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다(김지영, 2014; 조지연, 탁진국, 2016).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점인식에 관한 연구는 진로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검증한 것에 국한되어 있다(김민정, 이희경, 2014; 이지원, 이기학, 2017). 또 강점과 수용의 관계성을 검증한 연구(김미진, 홍혜영, 2011)와 강점과 대처의 관련성을 증명한 연구가 소수 있었다(신정원, 장효정, 현명호, 2015). 그 가운데 기독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강점 연구는 성격강점을 말씀묵상과 함께 행복증진 프로그램에 적용한 연구와(오윤선, 2016) 기독교 대학생과 비기독교 대학생의 강점과 우울 및 불안의 관계를 비교, 검증한 연구(박미하, 김은혜,

2012)도 있었다. 그리고 성격강점과 영적 안녕감 및 종교적 대처에 관한 연구(정연주, 2017) 등 소수 이루어지고 있었다.

4) 긍정적 대처의 이해와 선행연구 동향

긍정적 대처란 개인이 경험하는 문제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으로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개인의 모든 반응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Wortman & Silver, 1989). 즉 긍정적 대처는 스트레스 상황들로 발생하는 고통의 감소를 위하여 개인이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으로서 인지적, 정서적 전략 및 구체적 행동까지 포괄하는 의도적인 노력을 뜻한다.

John R. Tylor(1995)는 대처 방식에 따라서 문제 중심적 대처와 정서 중심적 대처로 분류한다. 여기서, 문제 중심적 대처란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환경 자극 자체를 변화시킴으로써 고통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말한다. 그리고 정서 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 자극으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려는 노력을 포함하는 의미이다(1984). 대부분의 경우, 이 두 가지 대처 전략은 복합적으로 사용되며 개인이 문제를 수용하는 형태와 정도에 따라 어느 한 가지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연구자들은 문제 중심적 대처를 적극적 대처로, 정서 중심적 대처를 소극적 대처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문제 중심적 대처가 정서 중심적 대처보다 비교적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단정하였다(김정희, 1995).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지나치게 비약된 결과론적 입장일 수 있다. 왜냐하면 문제 중심적 대처나 정서 중심적 대처는 개인의 문제 상황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상호 호혜적인 작용을 함으로써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예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 직전 상황에서도 제자들에게 '또 다

른 보혜사'로 영원히 함께 할 것을 말씀하시며 소망을 주신다(요 14:1-22). 그리고 예수의 죽음을 예고 받는 위기 상황의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사하시고 두려워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요 14:27). 이러한 경우는 문제 중심적 대처를 할 수 없고 정서 중심적 대처만 가능한 상황이었다. 또 구약성경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여호와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백성에게 알려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과거 주님의 큰 도움을 생각하며 다시금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다(사 63:1-19).

긍정적 대처에 대한 기존의 이론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전통적인 입장과 인지현상학적 모형이다. 관점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견해의 대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방어나 자아과정으로서 대처를 다루는 관점으로, 개인이 방어기제들을 통하여 스트레스에 대처한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개인이 가진 기질적 특성으로서 대처를 보는 관점이다. 셋째, 특별한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상황 중심적 관점으로 대처를 보는 관점이다(Folkman & Lazarus, 1980). 이와는 다르게 Susan Folkman과 Richard S. Lazarus(1980)는 인지현상학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에서 대처는 문제 상황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와 적응 간에 나타나는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된다. 즉, 환경에 의한 외적 자극과 경험에서 긍정적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또 다르게 대두되고 있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설명되는 긍정적 대처의 전제는 개인의 특성이나 상태가 외부적인 자극이나 충격만큼 개인에게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아다미, 2001)는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통합적인 측면의 긍정적 대처에 대한 접근방법을 취하여 개인의 특성 및 상태에 주목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독교 대학생의 긍정적 대처를 위한 개인 특성으로서 수용행동, 신앙 및 강점인식의 상

호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내 대학생의 긍정적 대처 및 스트레스 대처와 관련한 연구들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이창식, 김운정, 2004; 최해연, 2013). 또한 긍정적 대처와 수용의 관계를 증명한 연구(이진주, 김은정, 2015)와 대처 방식과 강점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가 있다(신정원, 장효정, 현명호, 2015). 그리고 기독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소수 찾아볼 수 있었으며(김영근, 2007; 황혜리, 류수정, 2015) 대처와 관련하여 기독교상담학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선행되어 있었다(강연정, 2008; 김준, 2014). 이어서 종교적 대처에 관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조혜운, 손은정, 2008; 최은경, 김윤희, 2015). 하지만 대처와 관련시켜 수용과 신앙 및 강점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에서 논한 바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기독교 대학생의 수용행동과 긍정적 대처, 그리고 신앙성숙도 및 강점인식 간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살펴보려고 한다. 이에 기독교 대학생들에 대한 이해 및 신앙적인 성숙과 긍정적 자기 발견을 돕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및 대상

먼저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 98명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어서 경기, 서울 지역 학교 및 교회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2017년 10월 30일부터 2017년 12월 8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거된 설문지는 총 487부였다. 그 중 부적합하게 판단된 37부를 제외한 뒤, 최종적으로 450명의 설문지만 통계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 자료 중 남자는 167명(37.3%), 여자는 282명(62.7%)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121명(26.9%), 2학년 101명

(22.4%), 3학년 73명(16.2%), 4학년 67명(14.9%), 휴학생 88명(19.6%)으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 구성

(1) 수용행동 척도(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

본 연구는 수용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Hayes 외(2004)의 척도를 기초로 문현미(2006)가 번안한 수용행동질문지(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 AAQ-16)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의 2개의 하위요인(수용, 전념행동) 총 16문항 중에 생각 또는 감정을 기꺼이 수용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수용관련 7문항만 사용하였다. 그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수를 3으로 고정하고 수용1, 수용2, 수용3으로 지정하였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7점)’의 Likert 7점 척도로 안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측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이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김채순(2012)의 연구에서 .86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720이었다.

(2) 신앙성숙 척도(The shepherd scale)

본 연구에서 신앙성숙을 측정하기 위해 Rodney L. Basset 외(1981)의 ‘신앙척도(The shepherd scale)’를 김성중(1996)이 번안하여 3개의 하위요인(신앙고백성, 교회생활성, 사회생활성)으로 구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신앙고백성’은 성경에 근거하여 자신의 신앙상태를 나타내고 ‘교회생활성’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성도간의 교제를 나타내며 ‘사회생활성’은 교회 밖에서 사회생활을 말한다. 이 척도는 Likert 5점으로 ‘매우 그렇다(5점) ~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평정하였다. 나한나와 홍혜영(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9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826이었다.

(3) 강점인식 척도(Strengths Knowledge Scale)

본 연구를 위한 강점인식 척도는 Govindji와 Linley(2007)의 강점활용 척도(Strengths Use Scale)의 총 20문항 중 강점인식 관련 8문항만 추출하여 변안한 김민과 탁진국(201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Likert 7점으로 '전혀 아니다(1점) ~ 매우 그렇다(7점)'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요인분석 후 4문항을 제외하고 4문항만 조사에 사용하였다. 김민과 탁진국(201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3으로 보고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813으로 나타났다.

(4) 긍정적 대처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긍정적 대처는 Folkman과 Lazarus(1985)의 대처 방식 척도를 김정희(1987)가 수정, 보완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세부적으로 문제 중심적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 정서 중심적 대처, 소망적 사고 대처의 4가지 대처방식으로 분류되며 총 5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사용하지 않는다(1점) ~ 아주 많이 사용한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대처 수준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최주연(201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29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의 기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WIN 21.0을 사용하여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는데 각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를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또 정규성 검정과 빈도분석, Pearson의 상관분석,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AMOS 24.0을 사용하여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 및 이해타당도를 검증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등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경로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3. 연구의 결과분석 및 해석

1) 기술통계

본 연구의 정확한 기술통계 분석을 위하여 먼저 변인들 간 편포도(skewness) 및 첨도(kurtosis)를 검증하였다. 정상분포의 수치는 [편포도 < 2], [첨도 < 4]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분석 결과 측정변인들의 편포도는 정서 중심적 대처의 경우 .268로 나타나 기준 2를 초과하였으나, 나머지 모든 하위변인들은 -.977부터 .147까지 기준 내 분포하여 정상수치로 판단하였다. 또 첨도는 강점인식2의 경우 .472로 나타났고 나머지 모든 하위 변인 및 각 문항들은 -.929부터 .084로 나타나 정상분포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각 변인 및 문항의 기술통계 계수는 <표 1>과 같다.

(표 1) 측정 변인의 기술통계 (N=450)

잠재변인	측정변인	평균	표준 편차	편포도	첨도
수용행동	수용행동1	3.31	1.169	-.349	-.675
	수용행동2	3.39	1.105	-.258	-.638
	수용행동3	3.37	1.064	-.280	-.420
긍정적 대처	문제중심적 대처	2.90	1.170	-.002	-.820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	2.85	1.217	.096	-.929
	정서중심적 대처	2.65	1.199	.268	-.816
	소망적 사고	2.77	1.211	.147	-.898
신앙성숙	신앙고백성	4.38	1.345	-.669	-.301
	교회생활성	4.30	1.508	-.623	-.581
	사회생활성	4.60	1.483	-.977	.002
강점인식	강점인식1	3.76	1.436	-.320	-.706
	강점인식2	4.29	1.438	-.311	.472
	강점인식3	4.42	1.206	-.613	.084
	강점인식4	4.19	1.413	-.456	-.585

2)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 모형의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 계수 분석을 적용하였다. 각 변수의 하위 문항들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수용행동2와 강점1은 유의 수준 $p<.05$ 를 기준으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외의 나머지 모든 변인들은 유의수준 $p<.05\sim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간 상관관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측정 변인의 상관관계 (N=45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수용1	1													
수용2	.413**	1												
수용3	.372**	.607**	1											
긍정1	.238**	.219**	.237**	1										
긍정2	.256**	.214**	.220**	.515**	1									
긍정3	.201**	.316**	.268**	.472**	.509**	1								
긍정4	.239**	.319**	.349**	.520**	.601**	.656**	1							
신앙1	.170**	.163**	.166**	.320**	.267**	.226**	.256**	1						
신앙2	.200**	.158**	.166**	.262**	.205**	.170**	.213**	.598**	1					
신앙3	.148**	.185**	.178**	.302**	.258**	.220**	.271**	.495**	.745**	1				
강점1	.132**	.084	.100*	.324**	.261**	.266**	.320**	.591**	.479**	.367**	1			
강점2	.191**	.246**	.240**	.360**	.301**	.300**	.311**	.549**	.494**	.487**	.553**	1		
강점3	.303**	.305**	.327**	.293**	.269**	.207**	.260**	.528**	.485**	.459**	.438**	.574**	1	
강점4	.180**	.272**	.300**	.281**	.249**	.261**	.325**	.461**	.498**	.538**	.524**	.590**	.510**	1

* $p<.05$, ** $p<.01$

3) 측정 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의 구조모형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전에 변인들이 기준 조건을 충족하는지 비표준화 λ 의 C.R.(critical ratio) 계수를 살펴보았다. 검증 결과 모든 변인 및 문항이 1.96($p<.05$)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 9.457~19.366($p<.001$)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의 집중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화 λ 계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519~.874의 계수로 나타나 모두 .5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측정변수의 타당도 검증 결과는 <표 3>에 설명하였고, <표 4>는 측정모형의 상관계수 및 표준오차를 설명한다.

<표 3> 측정변수의 타당도 계수 (N=450)

구분		비표준화 계수	C.R.	표준화 계수(ρ)
수용행동	→ 수용행동1	1.000	-	.762(***)
	→ 수용행동2	1.072	11.802	.788(***)
	→ 수용행동3	.750	9.457	.519(***)
긍정적 대처	→ 문제중심적 대처	1.000	-	.845(***)
	→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	.882	16.304	.752(***)
	→ 정서중심적 대처	.847	15.382	.712(***)
	→ 소망적 사고	.749	13.909	.652(***)
신앙성숙	→ 신앙고백성	1.000	-	.814(***)
	→ 교회생활성	1.088	19.366	.874(***)
	→ 사회생활성	.770	15.356	.698(***)
강점인식	→ 강점인식1	1.000	-	.753(***)
	→ 강점인식2	.810	14.374	.708(***)
	→ 강점인식3	1.067	15.972	.787(***)
	→ 강점인식4	.912	13.720	.677(***)

*** $p < .001$

<표 4> 측정모형의 상관계수 및 표준오차 (N=450)

상관관계		Estimate	S.E.
수용행동	↔ 긍정적 대처	.489(***)	.056
	↔ 신앙성숙	.281(***)	.060
	↔ 강점인식	.432(***)	.058
긍정적 대처	↔ 신앙성숙	.373(***)	.074
	↔ 강점인식	.513(***)	.071
강점인식	↔ 신앙성숙	.808(***)	.102

*** $p < .001$

4) 구조방정식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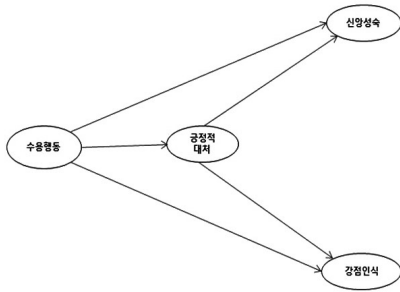
(1)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의 모델적합도의 판명은 절대 적합도 지수, 증분 적합도 지수, 간명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본래 제안하였던 구조모형적합도는 $\chi^2=694.604(df=99, p<.001)$, RMSEA=.116, NFI=.796, TLI=.749, CFI=.817, PNFI=.579, PCFI=.595, AIC=800.604의 계수를 나타냈다. 그리고 대안모형의 적합도는 $\chi^2=438.614(df=98, p<.001)$, RMSEA=.088, NFI=.871, TLI=.855, CFI=.896, PNFI=.628, PCFI=.645, AIC=546.61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정확한 구조모형 제시를 위하여 제안모형과 대안모형을 비교하였고, 적합도의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는 대안모형을 연구의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본 최종모형은 종속변인으로 선정된 신앙성숙도로부터 다른 종속변인 강점인식까지 이르는 경로를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최종모형을 적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표 5>는 최종모형과 제안모형의 계수이고 <그림 1>은 제안모형, <그림 2>는 대안모형, <그림 3>은 최종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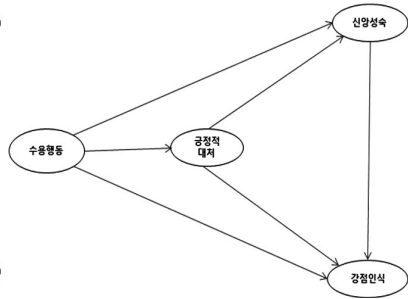
<표 5> 구조모형적합도 지수(N=450)

구분	χ^2	df	RMSEA	NFI	TLI	CFI	PNFI	PCFI	AIC
제안모형	694.604	99***	.116	.796	.749	.817	.579	.595	800.604
최종모형 (대안모형)	438.614	98***	.088	.871	.855	.896	.628	.645	546.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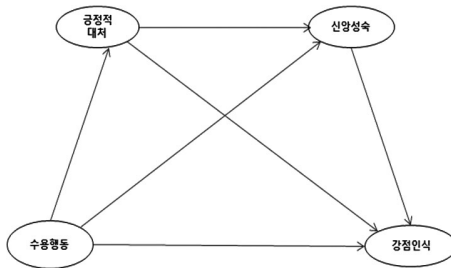
$\Delta\chi^2 / \Delta df=255.99/1, ***p<.001$



〈그림 1〉 제안모형



〈그림 2〉 대안모형



〈그림 3〉 최종모형

(2) 구조방정식모델 검증

① 직접효과 검증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모델 검증은 먼저, 긍정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직접효과 검증 결과, 수용행동에서 긍정적 대처까지 $\beta = .489(p < .001)$, 수용행동에서 신앙성숙까지 $\beta = .153(p < .05)$ 이었다. 그리고 수용행동에서 강점인식까지가 $\beta = .119(p < .05)$ 이었으며, 긍정적 대처에서 신앙성숙까지는 $\beta = .367(p < .001)$, 강점인식까지가 $\beta = .101(p < .05)$ 로 나타났다. 또한 신앙성숙에서 출발하여 강점인식까지는 $\beta = .801(p < .001)$ 이었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모형의 모든 경로에서 직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간접효과 검증

다음으로 본 구조모형의 간접효과는 모든 경로에서 유의한 것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p < .05$). 첫째, 수용행동에서 신앙성숙에 이르는 긍정적 대처의 간접효과는 $\beta = .180$ ($p < .05$)으로 유의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수용행동 지수가 높아질수록 긍정적 대처와 신앙성숙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는 수용행동이 증가될수록 긍정적 대처와 신앙성숙도 높아진다는 본 구조모형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결과였다. 둘째, 강점인식까지 이르는 경로 및 간접효과 검증 결과, 수용행동에서 강점인식까지 이르는 경로 가운데, 긍정적 대처의 유의한 간접경로 효과는 $\beta = .316$ ($p < .05$)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수용행동이 높을수록 긍정적 대처도 증가되며 강점인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긍정적 대처에서 강점인식까지 이르는 경로 가운데, 신앙성숙의 간접효과 검증 결과는 $\beta = .294$ ($p < .001$)로 99.9% 이상의 기준에서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긍정적 대처가 원활할수록 신앙성숙도와 강점인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위의 결과를 통하여 기독교 대학생의 수용행동과 신앙성숙,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긍정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다.

③ 총효과 검증

마지막으로, 본 연구모형에서 나타나는 신앙성숙과 강점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총효과 검증 결과를 살펴보았다. 첫째, 수용행동에서 신앙성숙에 이르는 총효과는 $\beta = .332$ ($p < .05$)로 나타나 그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수용행동 지수가 커질수록 신앙성숙을 잘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서 긍정적 대처는 신앙성숙에 대한 총효과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beta = .396$, $p < .001$). 둘째, 기독교 대학생의 수용행동 지수가 높을수록 강점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435$, $p < .05$). 그리고 긍정적 대처의 강점인식에 대한 총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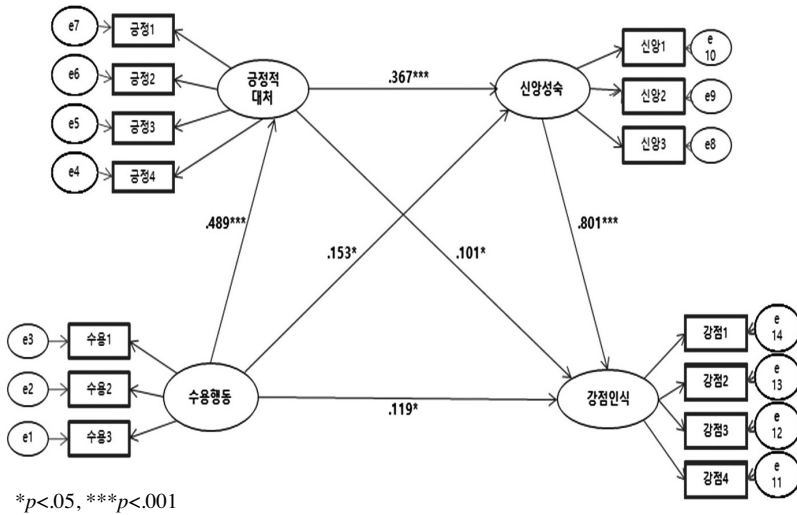
판단할 수 있었다($\beta=.396, p<.05$). 셋째, 긍정적 대처에 영향력이 있는 변인들을 살펴본 결과, 수용행동이 높아질수록 긍정적 대처 또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489, p<.001$). 이에 기독교 대학생의 수용행동이 높을수록 긍정적 대처도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모형의 경로 간 총효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본 구조모형의 효과 검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수용행동은 긍정적 대처와 신앙성숙, 강점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수용행동은 긍정적 대처라는 매개변인을 거쳐 신앙성숙, 강점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최종모형에서 나타난 신앙성숙이 강점인식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수준 99%($p<.001$) 이상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장 큰 계수를 보였다.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델의 변인들 간 효과는 <표 6>에 제시하였고 각 효과 수치는 <그림 3>에 설명하였다.

<표 6> 구조모형 변인들 간 효과($N=450$)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수용행동	→	.119*	.316*	.435*
긍정적 대처	→	.101*	.294***	.396*
신앙성숙	→	.801***	-	.801***
수용행동	→	.153*	.180*	.332*
긍정적 대처	→	.367***	-	.367***
수용행동	→	.489***	-	.489***

* $p<.05$, *** $p<.001$



〈그림 3〉 최종모형

III. 닫는 글

본 연구는 기독교 대학생의 수용행동과 신앙성숙, 강점인식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변인들 간에 긍정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독교 대학생의 수용행동, 신앙성숙도, 강점인식, 긍정적 대처에서 대부분의 변인들은 상호 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수용행동2와 강점2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변인들은 유의수준 $p<.05 \sim p<.01$ 에서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구조방정식모델의 직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수용행동이 높아지면 신앙성숙도 함께 정적(+)으로 상승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하여 수용이 신앙성숙도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을 검증한 국내 선행연구 결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본 결과를 통하여 기독교 대학생

집단의 수용행동이 활발해질수록 신앙성숙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용행동 지수가 높아질수록 긍정적 대처도 커지며 긍정적 대처가 클수록 신앙성숙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용행동이 높아지면 강점인식 수준도 정적(+)으로 높아지는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용과 강점의 유의한 관계를 검증한 김미진과 홍혜영(2011)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즉, 기독교 대학생 집단의 수용행동이 향상될수록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는데 유의한 영향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어서 수용행동 수준이 상승될수록 긍정적 대처도 유의하게 높아지며 긍정적 대처가 높을수록 강점인식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본 연구에서 채택된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 긍정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용행동부터 긍정적 대처라는 매개변인을 거쳐 신앙성숙도까지 유의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용행동부터 긍정적 대처라는 매개변인을 거쳐 강점인식까지의 경로도 유의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네 번째 가설에서 제시한 긍정적 대처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수용과 대처의 유의한 관계를 검증한 국내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김광웅, 2007; 김금미, 2010; 김미옥, 손정락, 2013; 심서영, 손영우, 2013; 이진주, 김은정, 2015). 위의 결과를 통하여 수용행동이 클수록 긍정적 대처가 원활해지고, 또한 긍정적 대처는 신앙성숙도에도 유의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검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 대처와 신앙의 관련성을 검증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반신환, 2006; 신재은, 현명호, 2010; 조혜윤, 손은정, 2008; 최은경, 김윤희, 2015). 그리고 수용행동이 상승될수록 긍정적 대처와 더불어 강점인식의 향상에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즉 긍정적 대처라는 매개변인은 기독교 대학생의 수용행동과 상호작용하여 신앙성숙도와

강점인식에 큰 효과를 발휘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 기준에 따라 최종모형 경로에서 발견된 특이점은 종속변수인 신앙성숙도와 강점인식의 인과관계이다. 다시 말해서 신앙성숙도가 높아질수록 개인 스스로 강점을 인식하고 발견하는데 매우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에 신앙과 강점의 유의한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박미하, 김은혜, 2012; 정연주, 2017).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성숙과 강점인식의 긍정적 성장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 수용행동은 신앙성숙도와 강점인식에 직접효과를 보여주었다. 즉 기독교 대학생들이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는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성숙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용행동은 자신의 잠재되어 있는 강점을 인식하고 발견하기까지 결정적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서 수용행동은 긍정적 대처에도 유의한 직접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다. 이에 수용적 태도는 기독교 대학생의 스트레스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기독교 대학생들의 수용행동 향상을 도울 수 있는 교육과 상담 및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매개변인으로 투입된 긍정적 대처는 수용행동으로부터 신앙성숙도와 강점인식에 도달하기까지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긍정적 대처가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성숙도와 강점인식 수준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기독교 대학생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면밀히 지도하는 학교 및 공동체의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모델에서 최적합도를 제시한 모형은 제안

모형의 종속변인 신앙성숙도로부터 시작하여 다른 종속변인인 강점인식까지의 경로에서 지대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최종모형에서는 결국, 수용행동은 긍정적 대처에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 대처는 신앙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며, 신앙성숙도는 강점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위계적 매개효과를 보여주었다.

종합해 보면, 기독교 대학생들이 이미 가지고 있거나, 새로 발휘할 수 있는 강점을 스스로 잘 알고 확실하게 발견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신앙적인 면에서 성숙함을 이뤄내는 것이다. 신앙성숙도는 기독교 대학생 스스로의 잠재력과 강점을 깨닫고 알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앎’은 먼저 여호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다(호 6: 3,6). 이사야 11장 2절에서 말씀하는 ‘재능의 영’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들에게 알려 주신다. 본 연구 결과, 기독교인의 강점은 신앙의 성숙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밝히 알고 확실히 발견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네 가지 변인들의 수준 향상은 기독교 대학생들의 풍요로운 신앙성숙과 잠재된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계발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앙성숙은 기독교 대학생의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강점을 인식하고 계발시키는데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일상에서 활력과 적응력을 높여 줄 수 있는 요인들의 발전적 도모는 이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충만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

독 대학생들의 가정 및 교회를 포함한 공동체는 기독교 대학생에게 잠재된 가능성과 강점을 다양한 영역에서 계발하고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상담 및 교육, 실제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은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모집대상으로 기독교 대학생 집단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기독교 대학생과 타종교인 대상을 비교 집단으로 선정하여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용행동이나 긍정적 대처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만약 이러한 변인들의 측정을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입장과 더불어, 객관적 측정 도구를 추가로 측정한다면,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는 양적 연구로 진행되었지만 수용행동, 긍정적 대처, 신앙성숙도, 강점인식의 상호 인과관계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질적 연구 및 종단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기독교 대학생들로 한정되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국가와 연령 및 대상을 선정하여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 강연정 (2008). 위기유형 및 대처양식에 따른 한 부모 가정 자녀상담. **복음과 상담**, 11, 139-164.
- 강은정, 이재희 (2013). 기독교가 대학생의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적 안녕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신앙과 학문**, 18(2), 7-32.
- 구본용, 박제일, 김세경, 안세지, 최정아, 천성문 (2017). **교수를 위한 대학생 상담의 실제**. 서울: 학지사.
- 김경희 (2014). 대학생할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수용과 전념 행동의 조절효과 분석.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광웅 (2007). 자아존중감 및 자기수용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83-999.
- 김금미 (2010). 대학생의 행복과 자아수용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상담 및 심리치료**, 22(3), 863-883.
- 김미옥, 손정락 (2013). 수용전념치료(ACT)가 대학생의 대인 불안, 스트레스 대처 방식 및 사회적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건강**, 18(2), 301-324.
- 김미진, 홍혜영 (2011). 성격강점과 행복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9(4), 85-95.
- 김민, 탁진국 (2017). 여자 고등학생의 강점인식이 진로미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7), 279-301.
- 김민정, 이희경 (2014). 대학생의 강점인식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강점 활용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5), 1811-1830.
- 김성중 (1996). 기독교인의 신앙성숙도와 자아현실성과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다미 (2001). 아동의 학대 경험이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롱, 김정민, 송근아 (2017). 대학생의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가 우울과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불일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지행동치료**, 17(4), 575-595.
- 김영근 (2007). 신학생의 스트레스와 기독교상담-전인적 성장상담을 통한 기

- 독교상담적 접근. **복음과 상담**, 8, 59-86.
- 김영중, 이현철 (2016). 기독교 대학에서의 학교부적응 및 중동탈락에 대한 질적 연구. **대학과 선교**, 30, 263-295.
- 김재영, 정숙희 (2016). 기독교 대학생의 우울과 내적 학습 동기의 관계에서 신앙성숙도의 매개효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7(4), 31-60.
- 김정은, 손정락 (2012). 수용념치료가 평가염려 완벽주의 학생들의 평가염려 완벽주의, 부정 평가에 대한 두려움, 경험 회피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임상**, 31(3), 749-771.
- 김정희 (1995). 스트레스 평가와 대처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관계. **상담 및 심리치료**, 7(1), 44-69.
-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준 (2014). 칼빈주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의 우울증: 그의 대처 방식과 기독교 상담에의 함축성. **개혁논총**, 31, 187-215.
- 김지연, 신현, 김미선, 박영남, 최은영 (2012).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는 수용념치료(ACT).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3(2), 87-114.
- 김지영 (2014). 대학생의 성격강점 및 덕성과 성격장애와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1(11), 75-99.
- 김진미, 손정락 (2013). 경험논문: 수용 전념 치료(ACT)가 발표불안이 있는 대학생의 사회적 회피와 자기-초점적 주의에 미치는 효과. **건강**, 18(2), 267-286.
- 김채순 (2012). 수용전념 및 인지행동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우울증, 심리적 수용 및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은, 김도연 (2012). 수용전념 치료가 불안사고 및 불안민감성, 수용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 발표불안을 중심으로. **건강**, 17(2), 299-310.
- 나한나, 홍혜영 (2010). 기독교청소년의 신앙성숙도와 자아정체감과 성의식간의 관계 연구: 해외거주 청소년 (TCK) 과 국내거주 청소년 비교. **미래청소년학회지**, 7(1), 43-67.
- 문현미 (2006). 심리적 수용 촉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수용-전념 치료 모

델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현미 (2005). 인지행동치료의 제 3동향. **상담 및 심리치료**, 17(1), 15-33.
- 박미라 (2017). 대학 신입생의 정신건강 관련 상담 요구에 관한 연구-스트레스, 우울·불안, 분노조절,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기독교 교육논총**, 52, 221-256.
- 박미하, 김은혜 (2012). 기독교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성격강점이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복음과 상담**, 19(1), 125-156.
- 박향숙 (2006). 문화권에 따른 파울러의 신앙발달이론 연구 경향 비교 연구. **기독교와 교육**, 13, 105-134.
- 반신환 (2006). 대학생의 종교와 종교적 대처.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2, 139-155.
- 신재은, 현명호 (2010). 종교성향, 종교적 대처와 상황적 용서의 관계. **건강**, 15(4), 699-710.
- 신정원, 장효정, 현명호 (2015). 대학생의 성격강점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와 정서조절 양식이 대학생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研究**, 23(3), 109-118.
- 심서영, 손영우 (2013). 사회적 긍정정서와 친화성이 조망수용과 긍정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 **감성과학**, 16(4), 457-468.
- 심은정 (2016).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불안과 우울의 유병률과 관련 요인. **청소년학연구**, 23(12), 663-689.
- 안진영, 유순화 (2016). 대학생의 수용행동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8(2), 173-197.
- 오윤선 (2016). 성격강점과 말씀묵상기도를 활용한 기독교 대학생들의 행복증진 프로그램 효과. **복음과 상담**, 24(1), 133-163.
- 오윤선, 김미숙 (2016). 스트레스가 대학생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한국성서대학교 학생중심으로. **학생생활상담연구**, 1, 5-30.
- 이상혁 (2011). 이야기로서 읊기 읽기. **구약논단**, 17(1), 96-98.
- 유성진, 권석만 (2011). 위험회피 기질 수용 프로그램의 적용 및 효과: 수용전념치료를 기반으로. **인지행동치료**, 11(2), 1-21.
- 이서진, 김은하 (2016). 정서인식명확성, 정서표현, 심리적 수용에 따른 군집 비교: 긍정 정서, 부정 정서, 불안 및 우울. **상담학연구**, 17(3), 65-87.
- 이수미, 유희주, 배시은, 김용태 (2015).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수용(Self-Acceptance)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조명. **한국기독교상담학**

회지, 26(3), 229-253.

- 이용호 (2015). 이스라엘 지혜 문학과 그 영향.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5, 47-68.
- 이정수 (2009). 신앙성숙평가척도 개발에 관한 교육 목회적 접근.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원, 이기학 (2017). 대학생의 강점인식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강점활용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1), 205-228.
- 이진주, 김은정 (2015). 수용적 긍정심리치료가 우울한 대학생의 우울 증상 및 행복에 미치는 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2), 477-503.
- 이창식, 김윤정 (2004).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의 중재효과: 남녀대학생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5(2), 183-213.
- 이훈진 (2009). 수용이 심리적 증상, 자존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9(1), 1-23.
- 임신일, 형희경, 김대용 (2015).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 종교 성향 및 영적 성숙도의 관계. **신앙과 학문**, 20(2), 149-165.
- 장명수 (2011). 현대의 심리적 위기문제와 기독교 해결중심 치료적 접근. **복음과 상담**, 17, 153-178.
- 정숙희, 이해주 (2012).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성숙도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소명의식의 매개효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7(2), 225-253.
- 정연주 (2017). 기독교대학생의 성격강점과 종교적 영적 안녕감의 관계: 종교적 대처의 매개효과. 서울여자대학교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희 (2013). 기독교 대안교육기관에서의 신앙성숙에 대한 질적연구: 신앙 공동체 이론을 중심으로. 백석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지연, 탁진국 (2016). 긍정심리기반 강점 코칭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자기 효능감,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1), 279-304.
- 조혜윤, 손은정 (2008). 종교성향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종교적 대처와 낙관성의 매개효과. **상담 및 심리치료**, 20(3), 773-793.
- 최윤영 (2012). 대학생의 신앙성숙도와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기독교 영성 프로그램 참여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7(3), 293-317.
- 최은경, 김윤희 (2015). 인간이해: 기독교대학생의 종교성향, 종교적 대처 및 분노표현간의 구조적 관계. **인간이해**, 36(1), 129-145.

- 최주연 (2013). 배우자의 심리적 학대, 해리 및 긍정적 대처방식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해연 (2013).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 패턴과 심리적응적 특징. *일반*, 32(1), 1-21.
- 한국일보 (2017). 2017년 대학생 취업 스트레스 정도와 해소법. 2018. 2. 15 검색, <http://www.hankookilbo.com>.
- 황선미, 박선홍, 김용태 (2016). 실존적 수용과 언약적 수용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조명. *복음과 상담*, 24(1), 231-260.
- 황혜리, 류수정 (2015). 기독교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대인관계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6(4), 305-325.
- 황혜리, 서경현, 김지윤 (2011). 대학생의 영적 안녕과 심리적 안녕 간의 관계. *건강*, 16(4), 709-724.
- Allen, R. J. (1992). Theological education for ministry as a model for education in the congregation. *Religious Education*, 87(3), 370-379.
- Allport, G. W. (1966). The religious context of prejudic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5(3) 447-457.
- Anderson, E. C. (2004). What is strengths-based education?: A tentative answer by someone who strives to be a strengths-based educator. *Unpublished Manuscript*, 51, 2-18.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Bach, P., & Hayes, S. C. (2002). The use of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to prevent the rehospitalization of psychotic patient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 1129-1139.
- Basset, R. L., Sadler, R. D., Kobishen, E. E., Skiff, D. M., Merrill, I. J., Atwater, B. J., & Livermore, P. W. (1981). The shepherd scale: Separating the sheep from the goat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9(4), 335-351.
- Clifton, D. O., & Paula N. (1992). *Soar with your strengths*. New York: Delacorte Press.
- Folkman, S., & Lazarus, R. 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1), 150–170.
- Folkman, S., & Lazarus, R. 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3), 219–239.
- Fowler, J. W. (1981). *Stages of faith: The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aning*. San Francisco, CA: Harper and Row, 4.
- Gable, S. L., & Haidt, J. (2005). What (and why) is positive psychology?.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9(2), 103–110.
- Goleman, D., Richard B., & Annie M. (2001). Primal leadership: The hidden driver of great performance. *Harvard Business Review*, 79(11), 42–51.
- Govindji, R., & Linley, P. A. (2007). Strengths use, self-concordance and well-being: Implications for strengths coaching and coaching psychologists. *International Coaching Psychology Review*, 2(2) 143–153.
- Greenberg, L. (1994). Acceptance in experiential therapy. In S. C. Hayes, N. S. Jacobson, V. M. Follette, & M. J. Dougher (Eds.), *Acceptance and change: Content and context in psychotherapy* (pp. 53–72). Reno, NV: Context Press.
- Hayes, S. C. (2004).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nd the new behavior therapies: Mindfulness, acceptance, and relationship*. New York: Guilford Press.
- Hayes, S. C. (2016).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relational frame theory, and the third wave of behavioral and cognitive therapies—republished article. *Behavior Therapy*, 47(6), 869–885.
- Hayes, S. C., & Kelly G. W. (2003). Mindfulness: Method and proces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10(2), 161–165.
- Hayes, S. C., Luoma, J. B., Bond, F. W., Masuda, A., & Lillis, J. (2006).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odel, processes and outcom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1), 1–15.
- Hayes, S. C., Strosahl, K., Wilson, K. G., Bissett, R., Pistorello, J. Toarmino, D., Polusny, M. A., Dykstra, T. A., Batten, S. V., Bergan, J.,

- Stewart, S. H., Zvolensky, M. J., Eifert, G. H., Bond, F. W., Forsyth, J. P., Karekla, M., & Mccurry, S. M. (2004). Measuring experiential avoidance: A preliminary test of a working model. *The Psychological Record, 54*(4), 553–578.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Coping and adaptation, The handbook of behavioral medicine*. New York: Guilford Press.
- Loder, J. E. (1998). *The Logic of the Spirit: Human development of the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John Wiley & Sons, 341.
- Lopez, S. J., & Snyder, C. R. (2003).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A handbook of models and measure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cCracken, L. M. (1998). Learning to live with the pain: Acceptance of pain predicts adjustment in persons with chronic pain. *Pain, 74*(1), 21–27.
- McCracken, L. M., & Chris E. (2003). Coping or acceptance: What to do about chronic pain?. *Pain, 105*(1–2), 197–204.
- McCracken, L. M., & Christophe, E. (2005). A prospective study of acceptance of pain and patient functioning with chronic pain. *Pain, 118*(1–2), 164–169.
- Meadow M. J., & Kahoe R. D. (1984). *Psychology of religion*. New York: Harper & Row.
- Nelson, C. E. (1989). *How faith matures*.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Packer, J. I. (2008). *하나님을 아는 지식(정옥배 역, Knowing God)*.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원전 1973 출판).
- Snyder, C. R., & Lopez, S. J. (2007). *Positive psychology, the scientific and practical explorations of human strength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Taylor, J. R. (1995). *Linguistic categorization: Prototypes in linguistic theory*. Oxford: Clarendon Press.
- Wortman, C. B., & Roxane C. S. (1989). The myths of coping with los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3), 349–357.

【 Abstract 】

The Effects of Acceptance Action of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on Faith Maturity and Strengths Knowledg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coping

Oh, Yoon Sun & Kim, Mi Sook
Korean Bibl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verify the effects of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acceptance action on faith maturity and strengths knowledg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coping. For this, a total of 450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were selected for sampling.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collected data were conducted by using the SPSS Win 21.0 statistics package program. Through AMOS 24.0, the structure equation modeling analyse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cceptance action, faith maturity, strengths knowledge and positive coping were positively correlated. Secondly, it was found that acceptance action had direct positive effects on faith maturity. Third, it was found that acceptance action had direct positive effects on strengths knowledge. Forth, it was found that faith maturity had direct positive effects on strengths knowledge. Lastly, it was identified that positive coping of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played a mediating role in relations between acceptance action and faith maturity, and between acceptance action and strengths knowledge. It was found that acceptance action, positive coping and faith maturity had direct positive effects on strengths knowledge. Based on these results,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acceptance action, faith maturity, strengths knowledge, positive coping, university students